

대행 스님

무조건 죽지 않는다면 죽은 세상을 어떻게 맛볼 것인가

여러분을 만나뵌 지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12일 만에 왔는데도 이번에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함으로써 첫째는 이 세상을 바로잡아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고, 또 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고, 내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고,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서 모두 자유스럽게 끄달리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사대로 흩어져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요다음에 뚜껑만 열면은 승(僧)으로서 이 세상을 감당하리만큼, 아마도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모습을 하면서, 행도 중용을 하면서…. 아마도 저 깊은 바다가 흘러 도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설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들고 남이 없이 용을 하는 것은 바로 법신 문수의 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푸르른 저 청정한 산과 들,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승가의 설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모두 둘이냐 하면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푸르름은 절로 푸르르고, 꽃 핀 거는 꽃 핀 것이고, 물 흐르는 것은 물 흐르는 것입니다.

지금 공부하는 분들이 아집과 아상을 가지고 '내가 이만하면', '이런 위치에서 이런 학위를 땄고 하나도 아쉬움이 없는 대업을 하고 있고, 내 가정이 돈이 없어서 질질 매지도 않는데 내가 뭐 배울 게 있나.' 이러지마는 잠시 잠깐입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가 고개를 숙이지 못한다면 바로 쭉정이를 낳는 벼 이삭과 같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실천에 옮길 수가 없고, 모든 것은 사람이 돼 가지고 사람 노릇을 못하는 격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하겠는데, 여러분은 항상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지금도 역시 과거를 현재에 가져왔고 미래는 현재에 가져왔으니 여러분이 지금 짊어지고 가고 오고, 죽고 살고, 먹고 똥 누고 일하고, 앉고 서고 자고 하는 것이 전부 참선이라고 그전부터 얘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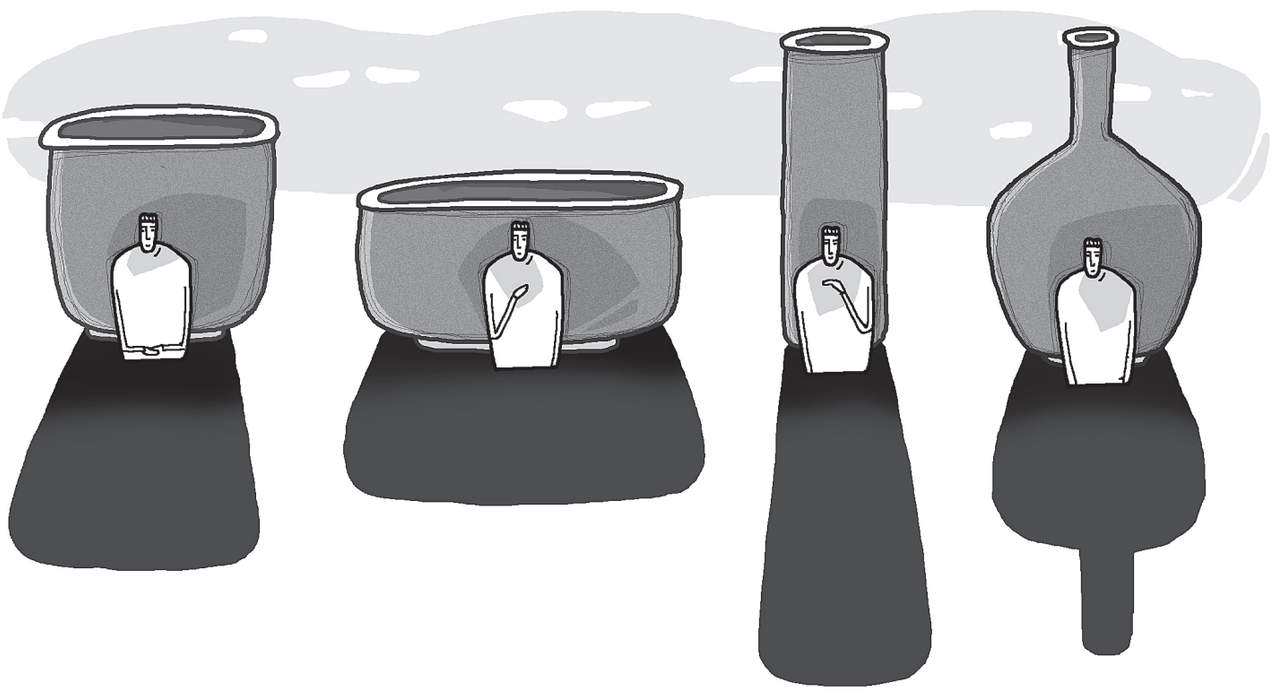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게 뭐냐. 왜 참선이 되느냐.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체 만법이라 하면은 일체 만행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해서 결정지으면서 그 행을 하면서 들이고 내는 것이 어떤 놈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답답한 것도 답답하지 않은 것도 전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사람도 답답한 마음도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 답답하지 않은 마음도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 또는 즐겁게 생각하는 것도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그러죠, 일체 만법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조작을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도깨비장난을 하고 여러분 마음에서 법신이 되고 보살이 되고 이러는 것입니다. 내가 가끔 열두 시에 내려와서 여러분을 접할 때 어떤 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마는 내가 만약에 그것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을 안 했더라면 내가 답답할 일도 하나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바로 내 고통이요, 내 몸이요, 내 모습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도대체 믿음이 상실되고 내 마음속의 그 믿음이 여지없이 흩어지고 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여러분을 여러분 자체 내에서 끌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모르고 물질세계의 50%만 보고선 항상 바람에 날림과 같이 노예가 돼서 이리저리 끌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나왔다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말에 속고 또는 남의 행을 보고선 거기에 쏠리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다 보니까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처의 참자기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나는 예전에 이렇게 했었죠. '이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이시여!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없이 자비하신데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했습니다. 스무 살 안쪽이죠. 그런데 그때 '색경을 봐라. 거기에 있느니라.' 색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못생긴 내 얼굴만 보이지 도대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부와 자가 상봉을 하고도, 내가 경을 봤습니까, 설법을 들었습니까? 그랬으니 그걸 모를 수밖에.

그렇게 자비하고 그렇게 같이하면서도 볼 수 없었으니 그 모습이 그리웠던 겁니다. '그렇게 자비한데 당신은 모습이 없고, 모습을 안 보이십니까?' 흠, 그렇게 어리석었어요. '색경을 봐라. 네가 손을 쳐들면 거기서도 손을 쳐들고, 네가 찌푸리면 거기서도 찌푸리고, 네가 울면 거기서도 눈물을 흘리느니라. 네가 마음이 괴롭고 언짢으면, 그리고 고독하면 바로 나도 역시 마찬가지니라. 네 그릇이 크다면 나도 클 것이고, 네 그릇이 작다면 나도 작을 것이다. 네가 울면 나도 같이 따라 우는 것이고 내가 울면 네가 같이 따라 우는 것이니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소리를 듣고서 하염없이 울면서 하루를 지내고 이틀을 지내도 몸이 고달프다는 생각도 없었고, 못 먹었다는 생각도 없었고, 괴롭다는 생각도 없고, 나 홀로라고 생각을 한 예도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앉았어도, 여러분과 같이 내가 여기 높이 앉았다고 해서 높이 앉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습만 보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저렇게 위에 높이 있다고 해서 높이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같이 항상 자비를 베푸시면서 찰나찰나 들고 나십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삼라만상의 그 여러 중생들, 이 세상의 보이는 중생, 이 세상의 보이지 않는 중생들을 다 거두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대로 미꾸라지처럼 말입니다, 요리 빼끗 조리 빼끗,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너무 물질에 젖고 너무 말수단에 젖고, 너무 배워서 아는 게 많아서 젖고, 습에 젖어서 그렇게 벗어나질 못하고 떳떳하게 설 수가 없는 그런 이치가 아주 많이 보입니다.

무조건 죽지 않는다면 죽은 세상을 어떻게 맛볼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면, 아주 죽는다면, 반쯤 죽는 게 아니라 아주 죽는다면 생산이 될 것입니다. 아주 죽는다면 다시 태어날 것이고 아주 죽지 못한다면 고생을 길게 하고 길게 아마 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